

무엇이 한국인을 한국인으로 만드는가: 한국인의 국가 정체성과 인종 정체성에 대한 외현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의 비교

정재욱
서강대학교

허주형[†]
Queen's University

나진경
서강대학교

한국 사회는 지금 빠른 속도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변하고 있고, 그로 인해 한국인 정체성의 지각 역시 달라졌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정체성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인종 범주와 국적 범주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 외국 출신의 한국 국적자들(국적집단)과 한국 출신의 외국 국적자들(인종 집단)을 얼마나 한국에 가깝다고 느끼는지 그리고 각 집단에 대해 얼마나 호감을 느끼는지 질문하였다. 자기보고식으로 외현적 태도를 측정된 연구 1에서 대학생 응답자들은 국적집단을 인종집단보다 더 한국적으로 느끼고, 더 큰 호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IAT를 사용하여 대학생들의 암묵적 태도를 측정된 연구 2에서는 반대로 인종집단이 한국집단보다 더 한국에 강하게 연합되어 있었고, 인종집단을 더 긍정적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가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맞이하는 한국인의 복합적인 심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국적, 인종, 정체성, 외현적, 암묵적, 태도

[†] 교신저자: 허주형, Department of Psychology, Queen's University, 306 Craine, 62 Arch st., Kingston ON K7L 3N6.
E-mail: 18jhh3@queensu.ca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하프파이프 종목에서 최연소로 금메달을 획득한 한 선수에 국내의 이목이 주목되었다. 언론은 ‘천재 스노보더’라는 타이틀로 클로이 김(Chloe Kim)을 소개했고, 그녀의 어린 나이보다 한국인 부모를 가진 미국 국가대표라는 정체성이 더 큰 화제가 됐다. 실제 클로이 김 역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미국을 모두 대표하는 특별한 기회를 가진 것 같다”고 언급했다(CNN, 2018년 2월 14일). SNS와 온라인 뉴스 댓글에는 한국계 클로이 김의 성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쪽과 미국 국가대표를 한국과 연결 짓는 것을 비판하는 쪽 모두 존재했다. 즉, 민족적으로는 한국계이지만 국적으로는 미국인인 클로이 김에 대한 한국인들의 평가는 양가적인 것처럼 보였다. 이런 양가적인 평가는 비단 클로이 김과 같은 해외 동포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외국인으로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이주민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 이주민들의 경우는 인종¹⁾ 정체성은 다르지만 국가 정체성 즉, 국적은 한국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가장 최근 자료에 근거하면 2018년 기준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 수는 1,246,626명이며, 2015년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민의 수는 155,497명이다. 이들은 전체 한국 인구 5,100만의 약 3%에 해당하며 그 수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즉, 빠른 속도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변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서 전통적으로 단일민족 국가로 인식되었던 우리나라도 더 이상 예외라고 하기 어렵다. 이런 사회 변화에 따라 한국인으로 통칭할 수 있는 집단 정체성의 모습 역시 변하고 있을지 모른다. 따라서 해외 동포나 국내 이주민처럼 국가 정체성과 인종 정체성이 불일치하는 사람들을 한국인들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해외 동포나 이주민처럼 다수의 정체성이 혼재한 사람들은 심리학의 오랜 연구 관심사였다. 하지만 다수의 정체성에 관련된 연구들은 이민자나 소수 인종이 겪는 차별이나 정체성 확립에 관한 적응문제를 다룬 것들(Berry, 2006; Miklikowska, 2018; Mossakowski, 2003; Reyna, Dobria, & Wetherell, 2013; Tsuda, 2014; Verkuyen, 2010; Yip & Fuligni, 2002)이 대부분이었다. 그 외 정체성이 모호한 대상에 대한 심리학 연구는 혼혈인처럼 인종 정체성(racial identity)이 모호한 경우나(Gilbert, 2005; Good, Chavez, & Sanchez, 2010),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의 경우처럼 전통적인 성 정체성(gender identity)에 따른 구분이 모호한 경우(Lloyd, Chalklin, & Bond, 2019; Thoroughgood, Sawyer, & Webster, 2020)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 점은 한국에서 수행된 연구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내 연구들도 주로 북한 이주민이나, 다문화 이주민을 향한 차별, 편견적 태도 그리고 정서를 탐구한 것(김동수, 김도환, 정태연, 2011; 김민영, 한규은, 2018; 김영주, 나진경, 2019; 최훈석, 이하연, 정지인, 2019; 방희정, 노경란, 정수진, 2010)이었고, 혼혈인, 성 소수자에 대한 것(오미영, 2009; 주유선, 김기태, 김보미, 2019)도 있었다. 본 연구자들이 아는 한 한국 사람들이 국가 정체성과 인종 정체성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지각하는지 직접 비교한 심리학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 동포나 국내 이주민들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한국 대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해외 동포와 귀화 외국인을 비교하여 국가 정체성과 인종 정체성 중 어느 것이 한국인으로서의 집단 정체성 지각에 중요한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한국인의 정체성

정체성에 관해 널리 알려진 심리학 이론은 사회정체성 이론(Tajfel, 1982; Tajfel & Turner,

1) 본 논문의 인종이란 단어는 엄밀하게 백인, 흑인, 황인을 구분하는 개념보다는 일반적으로 한민족, 한국 인종을 통칭하는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하 원고에서는 인종, 민족을 포괄하는 뜻으로 기술하였다.

1979)이다. 사회정체성 이론에 근거하면 사람들의 정체성은 고유한 개인적 특징에 근거한 개인 정체성과 소속된 집단 구성원으로서 발생하는 사회정체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감과 정보처리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상대방과 자신을 외집단과 내집단으로 구분하려는 동기를 갖게 된다. 즉, 사람들은 ‘우리’ 집단의 긍정성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우리’와 ‘그들’을 전략적으로 구분하게 되며 그것으로 ‘나’ 개인의 자존감에 혜택을 받게 된다. 개인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동기적 과정에서 단순히 우리와 그들 간 구분이 생기는 것만으로 내집단을 편애하고 외집단을 폄하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Tajfel, 1982; Tajfel & Turner, 1979).

집단 구분, 다시 말해 우리와 그들의 구분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를 기초로 다양한 판단을 하게 된다. 사회정체성 이론에 기초한 후속 이론인 자기범주화 이론에서는 어떤 인지적 범주화 과정이 발생하는지가 정체성 판단에 중요하다고 주장한다(Oakes, Haslam & Turner, 1994; Turner & Oakes, 1989). 타인을 지각하는 과정에서 그가 속한 범주 역시 같이 지각되고, 지각된 범주가 타인에 대한 인상형성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혜숙, 1999). 타인을 바라볼 때 일반적으로 쉽게 지각되는 성별, 인종 등의 범주가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적용 가능한 여러 범주가 함께 존재할 때는, 집단 내 구성원들의 차이에 비해 집단 간 구성원들의 차이를 강조할 수 있는 범주가 적용되게 된다. 다시 말해, ‘우리’와 ‘그들’, 두 집단으로 사람들을 구분 짓기 용이한 특정 맥락의 범주화가 사용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44대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를 예로 들면, 그는 흑인 남성이며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다. 버락 오바마가 흑인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상황을 상상해보면, 인종 범주가 그의 정체성을 판단하는데 적용되고 있을 것이다. 2008년 당시 상대정

당 대선 후보였던 공화당의 존 맥케인과 버락 오바마가 후보토론을 벌이는 장면을 생각하면, 소속정당 범주가 맥락적으로 특출해진다. 이처럼 정체성 판단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의미 있는 구분이 가능하게끔 이루어진다. 보통 맥락적 상황 요인에 따라 범주화가 이뤄지지만,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한 역사와 경험에 의해 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범주 역시 존재한다(김혜숙, 1999).

그렇다면 한국인들의 정체성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범주는 무엇일까? 동아시아연구원,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중앙일본은 2005년, 2010년, 2015년 세 차례에 걸쳐 한국인의 다층적인 정체성과 가치관, 그리고 다문화 인식 등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는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국적과 인종을 핵심 요인으로 뽑았다(이내영, 윤인진, 2016). 구체적으로 2005년 조사에서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해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를 묻는 복수 응답 문항에서 응답자들은 대한민국 국적(88.2%)과 한국인의 혈통(80.9%) 모두를 매우 높은 비율로 선택하였다. 오랜 시간 단일민족국가라는 믿음 속에서 살아온 만큼 한국 사람들은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인이라는 국가 정체성과 한민족이라는 인종 정체성이 모두 필요하다고 믿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단일민족국가로 여겨진 일본의 경우에도 정체성에 대한 생각은 비슷해 보인다. 2003년 한 일본 언론사에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응답자가 다문화주의를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진정한 일본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본인의 혈통을 지녀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0%를 넘었다(Nagayoshi, 2011). 이를 통해 단일민족국가를 오래 유지한 한국이

2)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는 1.민족정체성과 국가정체성, 2.다문화주의, 3.국가자부심, 4.한국사회와 문화, 5.역사인식과 국가비전, 6.분단과 국가정체성, 7.대의인식과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정체성, 8.한국인의 이념정향과 정치사회인식, 9.시민성을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나 일본의 사람들은 인종 정체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해외로 이주한 한국인들과 해외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과 상호작용할 기회 역시 늘어나고 있다. 해외 동포와 국내 이주민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매우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다. 이들 모두는 한국인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국가 정체성과 인종 정체성 중 하나만을 만족하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국가 정체성과 인종 정체성

전형적인 한국인으로 분류되지 않는 해외 동포나 국내 이주민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먼저, 한국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단일민족의 신화 속에서 살아왔고, 많은 이들이 한국인은 서로 동일한 인종이며 같은 역사와 문화를 공유해왔다고 믿고 있다(강원택, 2006). 실제로도 한국 사회는 여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오랜 시간 동안 높은 수준의 혈통적, 문화적 동질성을 유지해 왔다. 근대 국가 형성 과정에서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 등의 이유로 다른 인종의 유입, 다른 인종 간 교류 및 갈등 경험에 적었기 때문이다(엄한진, 이선미, 2006). 한국인의 단일민족 믿음은 해외 동포나 국내 이주민처럼 국가 정체성과 인종 정체성이 모호한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편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혜숙, 김동영, 신희천과 이주연의 연구(2011)에서도 다인종·다문화와 관련된 한국 사회의 갈등은 한국인들이 가진 단일인종·단일문화에 대한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회 변화의 추세에 맞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같이 변하는 것처럼 보인다. 2018년 2월 평창에서 개최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많은 외국 출신 귀화 선수들이 태극기를 달았다. 언론은 그들의 인종이나 혈통과 관계없이

귀화선수들을 응원하는 한국인들의 호의적인 태도를 보도하였다(뉴스1코리아, 2018년 10월 1일; 익스포츠뉴스, 2018년 10월 1일). 또한, 위에서 언급한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조사에서 ‘귀하게서는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단일민족·단일문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민족·다문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으로 다문화주의에 대한 태도를 질문하였다. 2010년에는 전체 응답자의 37.1%, 그리고 2015년에는 38.7%만이 단일인종·단일문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다인종·다문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0년에 60.6%, 2015년에는 49.7%로 더 컸다. 그러나 국가 정체성과 인종 정체성이 모호한 사람에 대해 한국인들이 가진 부정적 태도 역시 같은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일례로 ‘우리나라와 다른 인종·종교·문화를 가진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 데에 한계가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당했다(2010년 48.9%, 2015년 56.9%). 마찬가지로 한민족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답해달라는 문항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 사람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28.1%만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즉, 다인종·다문화 국가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국내 이주자들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그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렇다면 한민족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국적은 외국인인 해외 동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또 한국 사람들은 해외 동포와 국내 이주민 중에서 누구를 더 한국인에 가깝다고 생각할까? 본 연구에서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두 가지 연구를 계획하였다.

외현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

본 연구자들은 국가 정체성과 인종 정체성에 대한 한국인들의 외현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를

모두 측정하여 비교하기로 계획하였다. 태도란 특정 인물이나 대상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평가가 나타나는 심리적 경향성을 말한다(Eagly & Chaiken, 1993). 개인의 태도는 크게 자기보고식 설문 등을 통해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외현적 태도와 개인이 스스로 지각하지 못하는 태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암묵적 태도로 구분할 수 있다(Greenwald & Banaji, 1995). 많은 연구들에서 개인의 태도를 측정할 때 응답자의 자기보고 응답에 의존하는데, 이 측정 방법은 응답자의 정확한 자기 성찰(introspection)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응답자 스스로 지각하지 못하거나 잘못 지각하고 있는 태도를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Greenwald & Banaji, 1995). Greenwald와 McGhee 그리고 Schwartz(1998)는 간접적으로 대상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암묵적 연합 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이하 IAT)를 개발하였다. IAT는 검사 프로그램을 통해 두 개 범주가 조합된 과제에서 수행 속도의 차이를 계산해서 측정치를 얻게 된다. 암묵적 사회인지이론(Greenwald & Banaji, 1995)을 기반으로 개발된 암묵적 연합 검사는 대상과의 연합 강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잘 드러나지 않거나 쉽게 드러내기 어려운 태도를 측정하는 데 많이 사용된다.

먼저, 외현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가 서로 완전히 독립적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암묵적 태도와 외현적 태도는 태도의 형성, 변화 가능성, 그리고 예측할 수 있는 행동의 종류 등에서 서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Banaji & Heiphetz, 2010; Fazio, Jackson, Dunton, & Williams, 1995; Neumann, Hulslenbeck, & Seibt, 2004). 따라서, 외현적 방법과 암묵적 방법 모두 활용하면 한국인들의 태도를 더욱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으로 다른 인종에 대한 솔직한 태도 표현이나 응답이 어려울 수 있다(Banaji & Heiphetz, 2010). 얼마나 솔직히 자신을 표현하려고 했는지 여부(self-presentation demands)에 따라

외현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Nosek, 2005, 2007; Nosek & Smyth, 2007) 외현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를 비교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이제 막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본격적으로 변하는 중이어서 국가 및 인종 정체성이 모호한 사람들에게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가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사람들이 자신의 태도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외현적 자기보고 응답으로 측정한 태도와 암묵적 표상 사이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Banaji & Heiphetz, 2010). 이런 가능성이 존재하여 본 연구에서는 외현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를 모두 측정하여 비교해 보기로 계획하였다.

본 연구

한국인들은 국가 정체성과 인종 정체성 모두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한국인의 정체성이 모호해 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종 정체성에서 한민족으로 분류되지만 국가 정체성은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해외 동포와 인종 정체성은 한민족이 아니지만 국가 정체성에서는 한국인인 귀화 한국인을 한국인들이 어떻게 지각하는지 조사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가 정체성과 인종 정체성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여 두 요인 중에서 어떤 것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외현적 태도측정에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암묵적 태도를 측정하는 데 암묵적 연합 검사(IAT)를 사용하였다. IAT는 검사 프로그램을 통해 두 개 범주가 조합된 과제에서 수행 속도의 차이를 계산해서 측정치를 얻게 된다. 암묵적 사회인지이론(Greenwald & Banaji, 1995)을 기반으로 개발된 암묵적 연합 검사는 대상과의 연합 강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잘 드러나지 않거나 잘 드러내기 어려운 태도를 측정하는 데 많이 사용

된다.

정리하면, 해외 동포와 귀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정체성을 비교 연구하는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해외 동포(한국 인종 외국 국적자)와 귀화 한국인(타인종 한국 국적자)에 대한 한국인의 외현적 태도는 어떤 대상에 대해 더 긍정적일 것인가?

연구 문제 2. 앞서 확인한 대상(해외 동포 vs. 귀화 한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외현적 태도가 암묵적 연합 검사에서도 일관되게 관찰될 것인가?

이를 통해 한국인의 정체성에 필수 요소라고 일컬어지는 국가 정체성과 인종 정체성의 상대적 중요성을 검증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 1

연구 1에서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백인계 한국인과 한국계 미국인에 대한 한국인들의 외현적인 태도를 측정하고 비교하였다. 한국인들이 오랜 시간 ‘단일민족’ 사회에 익숙해 있으면서도 미래에는 다인종·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수용하는 듯한 조사 결과를 감안하면 두 대상에 대한 한국인 참가자의 태도를 특정한 방향으로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어느 한 집단에 대한 참가자의 태도를 예상하는 사전 가설을 세우는 대신 탐색적인 연구로 한국 인종집단과 한국 국적집단 중 참가자가 어느 집단을 더 한국적으로 생각하고, 더 호감을 느끼며,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알아보았다.

방 법

연구 참여자 및 절차

연구 1에는 서울 소재 대학교에서 학부 심리학 수업을 수강하는 한국인 재학생 126명(남성 48명, 여성 78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G*Power 3.0.13을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 두 응답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는 대응표본 t 검증의 경우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작은 효과크기($d = 0.3$)를 유의수준(alpha) .05, 검정력(1-beta) .80 으로 검증할 경우 필요한 표본크기는 90명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집한 표본 크기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참가자의 평균 나이는 21.88세($SD = 1.99$)로 범위는 19세에서 26세까지였다. 모든 참가자들은 참여 후 보상으로 수업에서 실험참여 점수(course credit)를 인정받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은 인상 형성과 지각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에 사용될 설문지에 포함될 인물들은 다음의 절차에 의해 선별되었다. 우선 인종은 한국인이지만 국적이 다른 나라인 해외 동포와 인종은 다르지만 국적은 한국인인 국내 이주자의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다양한 국적과 인종을 포함하여 교차시킬 만큼 대상자의 수가 충분하지 않았고, 국적과 인종의 효과를 통제시킬 필요도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아닌 국적은 미국인으로 그리고 인종은 백인으로 한정하였다. 그 후 성별, 직업군, 대중적 인지도에서 서로 비슷한 사람이 국적집단과 인종집단에 배분될 수 있도록 짝을 지어 최종 선별하였다. 이와 같은 선별 기준을 만족하는 대상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인종은 한국인이지만 국적이 다른 인종집단 3명과 인종은 다르지만 국적이 한국인 국적집단 3명이 최종 선별되었다. 논문의 서두에서 소개한 클로이 김은 대응하는 국적집단 대상자(미국계 한국 국적 여성인 국가대표선수)를 찾지 못해서 탈락하였다. 최종 선별된 인물은 총 6명으로 민병갈(국적집단)과 장도원(인종집단)은 사업가이며, 박문수(국적집단)와 장재형(인종집단)은 종교인이자 교수이며, 하일(국적집단)과 이기홍

(인종집단)은 연예인이다. 최종 설문에는 이들 6명 외에 유명한 한국인 2명(윤성빈, 유재석)에 대한 질문을 필러 문항(filler item)으로 포함하였고 이들에 대한 응답은 결과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참여자들은 2명의 한국계 한국인(filler items)과 3명의 백인계 한국인(이하 국적집단: 민병갈, 박문수, 하일)과 3명의 한국계 미국인(이하 인종집단: 이기홍, 장재원, 장재형)에 대한 간단한 신상 정보(이름, 직업/업적, 인종, 국적, 사진)를 보고 각 인물에 대해 이어지는 질문에 답변하였다. 설문에 사용된 인물들은 모두 남성이며 실제로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성취를 이룬 인물들임을 참가자들에게 알려주었다. 해당 인물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은 각 인물이 얼마나 한국인으로 느껴지는지를 5점 척도(한국적임; 1 = 전혀 한국인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5 = 완전한 한국인이라고 느껴진다)로 평정하게 하여 측정하였다. Tajfel과 Turner(1979) 이후로 집단 정체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해왔다. 해당 집단의 일원으로 느끼는지를 직접 묻는 방식 이외에도, 집단에 대한 호감도(Brewer, 1991; Hornsey & Hogg, 2000)와 해당 집단이 자랑스러운 정도(Smith & Taylor, 1997), 집단에 대한 애착(Smith, Murphy, & Coats, 1999)을 측정하는 방식이 자주 사용되었다. 이 점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은 각 인물에게 얼마나 호감을 느끼는지(호감도; 1 = 전혀 호감이 가지 않는다, 5 = 매우 호감이 간다)와 각 인물이 이룬 성취가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겨지는지(자랑스러움; 1 =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5 = 매우 자랑스럽다)를 5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또한, 자극으로 사용한 6명이 모두 실제 인물이기 때문에 추가로 각 인물에 대

해 얼마나 친숙하게 느껴지는지(1 = 전혀 모름, 3 = 꽤 친숙함), 각 인물이 얼마나 성공했다고 생각하는지(1 = 성공하지 못함, 3 = 매우 성공함)를 3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여 통제변인으로 활용하였다.

결 과

각 집단 내 상관관계 분석

세 가지 주요 변인(한국적임, 호감도, 자랑스러움) 응답에 대해 설문에 제시된 국적집단의 3명과 인종집단의 3명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각 변인에 대한 상관관계는 표 1, 2, 3을 통해 제시하였다. 모든 변인에 걸쳐 각 집단 내 인물들 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이후 분석에는 국적집단 3명, 인종집단 3명 응답을 평균하여 국적집단과 인종집단으로만 구분하여 활용하였다(단일척도의 내적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인종집단의 한국적임 응답 크론바하 알파 = .78, 호감도 응답 크론바하 알파 = .54, 자랑스러움 응답 크론바하 알파 = .77 그리고 국적집단의 한국적임 응답 크론바하 알파 = .70, 호감도 응답 크론바하 알파 = .49, 자랑스러움 응답 크론바하 알파 = .64)⁴⁾.

4) 인종집단의 호감도 응답과 국적집단의 호감도 응답을 각각 단일척도로 구성했을 때의 내적신뢰도 값이 비교적 낮다. 그것은 아마도 호감도 응답에서 집단 내 인물들 간 상관값이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표 2). 본 연구의 자극으로 사용하기 위한 인물들을 선별할 때, 국적과 인종은 집단 내에서 동일하도록 통제하였지만, 그 외에 호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외변인들을 엄격히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인종집단의 호감도 응답에서 비교적 상관이 낮은 인물 1을 제외하고 척도를 구성하면 내적신뢰도 값이 .68로 상승한 반면, 국적집단의 호감도 응답에서 비교적 상관이 낮은 인물 3을 제외하고 척도를 구성하여도 내적신뢰도 값은 .494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소폭 상승하였다. 한 명씩 제외

3) 하일(로버트 할리)은 2019년 4월에 마약투약 혐의로 체포되어, 2019년 8월에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연구의 데이터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인 2018년 4월(연구 1)과 8월(연구 2)에 수집했기 때문에, 하일의 범죄 행위 사실이 본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표 1. 연구 1의 '한국적임' 변인에 대한 각 집단 내 인물 간 상관관계

	인종집단 1	인종집단 2	인종집단 3	국적집단 1	국적집단 2	국적집단 3
인종집단 1	-	.57**	.40**	-.19*	-.05	-.05
인종집단 2	.57**	-	.67**	-.18*	-.12	-.20*
인종집단 3	.40**	.67**	-	-.23*	-.15	-.09
국적집단 1	-.19*	-.18*	-.23*	-	.64**	.33**
국적집단 2	-.05	-.12	-.15	.64**	-	.34**
국적집단 3	-.05	-.20*	-.09	.33**	.34**	-

** $p < .01$, * $p < .05$

표 2. 연구 1의 '호감도' 변인에 대한 각 집단 내 인물 간 상관관계

	인종집단 1	인종집단 2	인종집단 3	국적집단 1	국적집단 2	국적집단 3
인종집단 1	-	.24**	.17	.18*	.28**	.39**
인종집단 2	.24**	-	.52**	.19*	.37**	-.03
인종집단 3	.17†	.52**	-	.16	.32**	.14
국적집단 1	.18*	.19*	.16	-	.33**	.21*
국적집단 2	.28**	.37**	.32**	.33**	-	.21*
국적집단 3	.39**	-.03	.14	.21*	.21*	-

** $p < .01$, * $p < .05$, † $p = .06$

표 3. 연구 1의 '자랑스러움' 변인에 대한 각 집단 내 인물 간 상관관계

	인종집단 1	인종집단 2	인종집단 3	국적집단 1	국적집단 2	국적집단 3
인종집단 1	-	.58**	.48**	.25**	.38**	.40**
인종집단 2	.58**	-	.61**	.25**	.27**	.23**
인종집단 3	.43**	.61**	-	.27**	.41**	.35**
국적집단 1	.25**	.25**	.27**	-	.36**	.43**
국적집단 2	.38**	.27**	.41**	.36**	-	.32**
국적집단 3	.40**	.23**	.35**	.43**	.32**	-

** $p < .01$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한 단일적도로 인종집단과 국적집단의 호감도를 비교하여도 국적집단($M=3.29$, $SD=0.59$)에 대해 인종집단($M=2.83$, $SD=0.54$)보다 더 호감을 느끼는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t(125) = -8.15$, $p < .001$.

추가로 연구 1의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와 기술통계치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연구 1의 목

표 4. 연구 1 주요 응답 간 상관과 기술통계치

	인종집단					국적집단							
	1	2	3	4	5	1	2	3	4	5	6	7	
M	3.06	3.13	3.12	2.65	1.55	3.29	3.38	3.10	2.43	1.67	0.38	21.88	
SD	0.77	0.50	0.71	0.36	0.31	0.71	0.54	0.60	0.41	0.32	0.49	1.99	
인종집단	1	-	.36**	.34**	-.08	.00	-.21*	.17	.11	-.16	-.16	-.17	-.15
	2		-	.57**	.29**	.19*	.07	.44**	.25**	.18*	-.04	-.17	-.21*
	3			-	.23*	.20*	.11	.40**	.50**	.13	-.03	-.21*	-.21*
	4				-	.11	.16	.25**	.25**	.56**	.05	-.22*	-.14
	5					-	.09	.05	-.01	.08	.33**	-.10	.03
국적집단	1					-	.27**	.37**	.17	.16	.03	.01	
	2						-	.63**	.34**	.19*	.07	.01	
	3							-	.31**	.12	-.10	-.11	
	4								-	.18*	-.01	-.12	
	5									-	.21*	.06	
6										-	.37**		
7												-	

1.한국적 2.호감도 3.자랑스러움 4.성공도 5.친숙함 6.성별(여:0, 남:1, 남=48명) 7.(만)나이

** $p < .01$, * $p < .05$

적은 국적집단과 인종집단에 대해 외현적으로 나타나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호감도 그리고 자랑스러움 지각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따라서 기타 변인들의 상관관계는 따로 해석하지 않았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호감도, 및 자랑스러움에서 집단 간 차이 비교

연구의 종속 변인인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호감도 및 자랑스러움에서 국적집단과 인종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참가자들은 국적집단($M = 3.29, SD = 0.71$)을 인종집단($M = 3.06, SD = 0.77$)보다 더 한국적으로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t(125) = -2.27, p < .05$. 마찬가지로 참가

자들은 국적집단($M = 3.38, SD = 0.54$)에 대해 인종집단($M = 3.14, SD = 0.50$)보다 더 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t(125) = -4.98, p < .001$. 반면 국적집단($M = 3.10, SD = 0.60$)과 인종집단($M = 3.12, SD = 0.71$)간 성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정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125) = 0.338, p = .74$. 정리하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호감도에서 한국인들은 모두 국적집단을 인종집단보다 높게 평정하였다. 따라서 인종보다는 국적이 한국인들의 외현적 태도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친숙도와 성공도가 국적집단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통계 변인으로 측정된 친숙함과 성공도 응답

에서 국적집단과 인종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참가자들은 국적집단($M = 1.67, SD = 0.32$)이 인종집단($M = 1.55, SD = 0.31$)에 비해 더 친숙하다고 느꼈다, $t(125) = -3.65, p < .001$. 그러므로 국적집단을 더 한국인으로 느끼고 그들에게 더 호감을 가지는 이유도 단순히 그들이 더 친숙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와는 반대로 인종집단($M = 2.65, SD = 0.36$)이 국적집단($M = 2.43, SD = 0.41$)에 비해 더 성공했다고 보고하였다, $t(125) = 6.74, p < .001$. 인종집단이 더 성공했다고 지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적집단을 더 한국적으로 느끼고 그들에게 더 호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은 친숙도와 성공도에서의 집단 간 차이를 통제하고도 한국인으로서 정체성과 호감도에서 나타났던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추가 검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로 집단별 친숙함과 성공도 차이가 국적집단을 더 한국적이라고 느끼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국적집단의 친숙함 응답에서 인종집단의 친숙함 응답을 뺀 친숙함 차이 점수를 계산하였고 마찬가지로 성공도 차이 점수 역시 계산하였다. 그리고 집단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응답을 개체내 요인으로 하고, 친숙함 차이 점수와 성공도 차이 점수를 공변인으로 포함한 ANC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친숙함과 성공도의 차이를 통제하고도 국적집단을 더 한국적으로 여기는 응답차이가 경계선상에서 유의하였다, $F(1,123) = 3.54, p = .06$. 두 번째로 집단별 친숙함과 성공도 응답의 차이가 국적집단에 대해 더 호감을 느끼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았다. 집단별 호감도 응답을 개체내 요인으로 하고, 친숙함 차이 점수와 성공도 차이 점수를 공변인으로 포함한 ANC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국적집단에 대해 더 호감을 느끼는 응답차이가 여전히 유의하였다, $F(1,123) = 19.05, p < .001$. 정리하면, 국적집단과 인종집단에 따라 지각된 친숙함과 성공도 지각 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

었지만 이와 같은 차이를 통제하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호감도에서 나타난 차이가 사라지는 않았다.

논 의

연구 1에서는 한국 국적을 가졌지만 인종이 다른 국적집단과, 그와는 반대로 외국 국적을 가졌지만 한국계인 인종집단에 대해 한국인 대학생 참가자들의 태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참가자들은 국적집단을 더 한국인으로 느꼈으며 그들에게 더 큰 호감을 표시하였다. 다만, 두 집단의 성취는 비슷한 수준으로 자랑스럽게 여겼다. 자랑스러운 정도에서 국적집단과 인종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성공도 지각에서 나타난 차이 때문일 수 있을 것이다. 참가자들은 국적집단보다 인종집단의 성공도를 더 크게 지각하였고, 그 차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정도에도 반영됐을 수 있다(인종집단의 성공도와 자랑스러움 응답 사이 상관 .23, 국적집단의 성공도와 자랑스러움 응답 사이 상관 .31 로 모두 정적인 방향으로 유의하다). 그러므로 국적집단의 더 큰 성공도 지각이 국적집단의 자랑스러움 응답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원래 나타났어야 할 차이가 사라진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이 가능성을 엄밀히 조사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로 남아있다. 그리고 인종집단보다 국적집단을 더 한국인으로 느끼고, 국적집단에 대해 더 호감을 표시하는 응답 차이는 그들을 친숙하게 여기는 정도와 성공적으로 여기는 정도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통제하고 난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즉, 대학생 응답자들이 인종집단보다 국적집단을 더 가깝게 지각하는 결과는 비단 한쪽을 더 친숙하게 여기거나 그들의 성공도를 다르게 지각해서라고 보기 어렵다. 연구 1의 결과를 정리하면, 적어도 한국 대학생 응답자들의 경우 외현적인 태도 형성에서 한국 인종보다는 한국 국적이 더 중요한 범주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이런 차이는 암묵적 태도에서도 일관되게 관찰될 것인가? 서론에서 소개한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에서 외국 출신이면서 한국 국적을 지닌 이들을 한민족 구성원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한국인들의 태도는 연구 1에서 관찰된 결과보다 더 복잡적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연구 2에서는 암묵적 연합 검사(IAT)를 활용하여 참가자가 국적집단과 인종집단에 대해 지닌 태도를 암묵적으로 측정하여 외현적 태도와 비교·대조하여 살펴보기로 하였다.

연구 2

연구 2에서는 IAT를 이용하여 외국계 한국인(이하 국적집단)과 한국계 외국인(이하 인종집단)에 대한 한국인의 암묵적인 태도를 측정하였다. 연구 1에서 측정된 세 변인 중 각 집단이 한국적이라고 느껴지는 정도와 호감도에서만 집단 간 차이를 확인했기 때문에 연구 2의 IAT에서도 이 두 변인만을 대상으로 살펴보기로 하였다. 연구 1과의 직접 비교가 가능하도록 연구 1에서 활용한 국적집단과 인종집단의 6명 사진을 IAT의 자극으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한국적이라고 느끼는 정도와 호감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단어들을 선별하여 사진 자극과 단어들의 연합강도를 측정하기로 하였다. 먼저 국적집단과 인종집단을 참가자들이 얼마나 한국적으로 느끼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인물과 한국을 연상시키는 단어 혹은 외국을 연상시키는 단어와의 연합강도를 측정하는 IAT(이하 한국 IAT)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각 집단에 대한 참가자들의 호감도를 측정하기 위해 각 인물 사진과 긍정적인 단어 혹은 부정적인 단어와 연합강도를 측정하는 IAT(이하 태도 IA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는 Greenwald, McGhee와 Schwartz(1998)가 제작한 IAT 스크립트를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방 법

한국 IAT

연구 참여자 및 절차

연구 2의 한국 IAT는 서울 소재 대학교에서 심리학 실험 모집 광고문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여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대학생 및 대학원생 65명(남성: 21명, 여성: 44명)이 한국 IAT에 응답하였고 평균나이는 22.39세($SD = 2.01$)였다. 모든 참여자에게 실험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소정의 기프트콘을 지급하였다. G*Power 3.0.13을 사용하여 표본크기를 계산한 결과, 단일 표본 t 검증을 사용할 경우 통상적으로 말하는 작은 효과 크기 ($d = 0.3$)를 유의수준(alpha) .05, 검정력 (1-beta) .80 으로 검증할 경우에는 71명, 같은 조건으로 중간 크기의 효과를 ($d = 0.5$) 검증할 경우에는 27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표본 크기는 작은 효과를 검증하기에는 약간 부족하나 중간 크기의 효과를 검증할 때는 충분한 수준이다. 태도 IAT의 표본 크기도 같은 수준이었다.

한국 IAT 제작

한국 IAT에서는 외국계 한국인(이하 국적집단)과 한국계 외국인(이하 인종집단)을 비교하여 참가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한국과 가깝게 느끼는 집단이 어느 쪽인지 알아보기 위해 계획하였다. 국적집단과 인종집단에 각각 속한 인물들의 사진으로는 연구 1에서 사용했던 6명의 사진을 활용하였다. 국적집단에 속한 3명 사진은 모두 한국 국적을 지닌 외국계(백인계) 한국인이며 인종집단에 속한 3명 사진은 모두 한국 인종의 한국계 외국인이었다. IAT 시작 전에 포함된 6명의 사진과 국적을 참여자들에게 안내하여 개별 인물의 인종과 국적 정보를 알 수 있게 하였다. 한국과 외국에 관련된 단어들은 양쪽의 성격이 비슷한 단어 각 4개씩, 총 8개를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관련된 단어로는 청와대, 김치,

서울과 태극기였고, 외국과 관련된 단어로는 백악관, 햄버거, 뉴욕과 성조기였다. 자극 단어는 암묵적 국수주의를 다룬 선행 연구를 참고하였으며 한국과 외국을 쉽게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제시하였다(Butz, Plant, & Doerr, 2007; Carter, Ferguson, & Hassin, 2011). 사진 속 인물이 속한 집단(국적집단, 인종집단)에 따라 어느 범주에 더 강하게 연합되는지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국적집단 혹은 인종집단의 인물 사진 자극과 한국 또는 외국 단어 간 연합의 강도를 측정하며, 연합이 강할수록 참가자의 반응 속도가 빠르고 연합이 약하면 참가자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예를 들어 ‘한국’ 관련 단어-인종집단, ‘외국’ 관련 단어-국적집단을 연합시키는 속도가 ‘한국’ 관련 단어-국적집단, ‘외국’ 관련 단어-인종집단을 연합시키는 속도보다 빠르다면 참가자들이 한국 국적보다 한국 인종을 지닌 대상을 더 한국적으로 느낀다고 짐작할 수 있다. 연합 속도를 비교하여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참가자들이 한국 인종보다 한국 국적을 지닌 대상을 더 한국적이라 느낀다고 잠정적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국 IAT 진행 순서

IAT는 일반적으로 총 7개 단계를 거쳐 시행되며 단계에 따라 참가자는 타겟 사진을 최대한 정확하고 빠르게 분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 IAT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은 표 5에 제시하였다. 각 단계를 시작하기 전 참가자는 주어진 단어나 사진 자극을 최대한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분류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주어진 자극이 모니터 화면 왼쪽에 제시된 속성과 연합될 경우 컴퓨터 자판의 왼편에 위치한 D키를 누르며 화면 오른쪽에 제시된 속성과 연합될 경우 자판의 오른편에 위치한 K를 누르게 된다.

총 7 단계로 진행되는 IAT 중 1, 2 그리고 3 단계는 연습 단계이다. 1 단계에서 참가자는 타겟 사진(국적집단 혹은 인종집단)을 그에 알맞은

속성(‘외국계 한국인’ 혹은 ‘한국계 외국인’)에 배정하는 연습을 한다. 2 단계에서 참가자는 타겟 단어(태극기, 청와대 등)를 그와 연관된 속성(‘한국’ 혹은 ‘외국’)과 연결하는 연습을 한다. 3 단계는 두 개 범주가 연합된 연습 시행으로 타겟 사진과 타겟 단어를 외국계 한국인 + 한국이라는 속성 혹은 한국계 외국인 + 외국이라는 속성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한다. 4 단계는 실제 검사 시행이다. 5 번째 단계는 연습 시행이며 1 단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속성이 위치한 자리가 반대이다(왼쪽 ‘한국계 외국인’, 오른쪽 ‘외국계 한국인’). 마찬가지로 6 단계는 두 개 범주가 연합된 연습 시행으로 속성의 짝이 한국계 외국인 + 한국, 외국계 한국인 + 외국으로 뒤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7 단계에서 실제 검사 시행이 이루어진다.

태도 IAT

연구 참여자 및 절차

연구 2의 태도 IAT는 한국 IAT와 유사한 방식으로 서울 소재 대학교에서 심리학 실험 모집 공고문을 통해 모집한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총 65명(남성: 24명, 여성: 41명)의 참가자를 모집하였으며 평균나이는 22.43세($SD = 3.13$)로 범위는 19세에서 27세였다.

태도 IAT 제작

태도 IAT에서는 외국계 한국인(이하 국적집단)과 한국계 외국인(이하 인종집단)을 비교하여 참가자들이 어느 집단을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느끼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진 속 인물이 속한 집단(국적집단, 인종집단)에 따라 ‘싫음’과 관련된 부정적인 단어(실패, 추잡함 등)와의 연합이 더 강한지 혹은 ‘좋음’과 관련된 긍정적인 단어(훌륭함, 행복 등)와의 연합이 더 강한지 알아보았다. 자극 단어는 Nosek, Greenwald 그리고 Banaji(2005)가 인종 IAT 조사에 사용한 단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며, 노인

대한 암묵적 선호도를 측정할 선형 연구를 참고하였다(이현지, 방희정, 2012). 태도 IAT에 사용된 사진 자극은 연구 1과 한국 IAT에서 사용한 6명의 사진을 동일하게 활용하였으며 연합 속도의 원리는 한국 IAT와 동일하다. 예를 들어 부정적 단어-국적집단, 긍정적 단어-인종집단을 연합시키는 속도가 부정적 단어-인종집단, 긍정적 단어-국적집단을 연합시키는 속도보다 빠르다면 참가자들이 한국 국적보다 한국 인종을 지닌 이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한국 IAT에서와 마찬가지로 참여자들이 IAT 시작 전에 각 대상에 대한 인종과 국적 정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부정적인 속성의 단어와 긍정적인 속성의 단어는 각 8개씩 총 16개였다. ‘싫음’에 해당하는 부정적 단어는 실패, 추잡함, 지독함, 고뇌, 끔찍함, 사악함, 상처, 무서움 여덟 가지이다. ‘좋음’에 해당하는 긍정적 단어는 훌륭함, 행복, 즐거움, 사랑, 영광, 평화, 기쁨, 웃음의 여덟 가지이다.

태도 IAT 진행 순서

태도 IAT는 한국 IAT와 마찬가지로 7 단계를 거쳐 진행되며 각 단계에 제시되는 자극의 순서와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5에 제시하였다.

결 과

암묵적 태도 D 값

IAT를 통해 참가자들의 반응 편향을 살펴볼 수 있는 D 값을 산출할 수 있다. D 값은 Greenwald, Nosek, 그리고 Banaji(2003)가 기존 IAT 점수 산출 방식의 취약점을 보완하여 고안한 새로운 알고리즘에 의하여 계산된다. 새로운 계산법은 기존의 방법에 비해 속도-정확성의 충돌 문제(tradeoffs), 연령 증가에 따른 반응속도 저하, 극단 값 처리 등의 문제가 개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D 값은 검사과제의 평균차이를 검사과제의 지연시간(latencies)의 표준편차로 나누어 계산된다. 평균 차이 값을 표준편차로 나누는 계산 방식은 효과크기, d (Cohen, 1977)를 계산하는 것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IAT로 계산된 D 값을 효과크기로 부르기도 한다. 대략적인 D 값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습시행 단계인 6, 3 단계의 평균차이값을 표준편차로 나누어 DI 을 구한다. 같은 방식으로 검사시행 단계인

표 5. 연구 2 IAT의 진행 순서와 항목

단계	시행 횟수	한국 IAT		태도 IAT	
		D 키(왼쪽)	K 키(오른쪽)	D 키(왼쪽)	K 키(오른쪽)
1	20	국적집단	인종집단	국적집단	인종집단
2	20	한국단어	외국단어	부정단어	긍정단어
3	20	국적집단+한국단어	인종집단+외국단어	국적집단+부정단어	인종집단+긍정단어
4	40	국적집단+한국단어	인종집단+외국단어	국적집단+부정단어	인종집단+긍정단어
5	20	인종집단	국적집단	인종집단	국적집단
6	20	인종집단+한국단어	국적집단+외국단어	인종집단+부정단어	국적집단+긍정단어
7	40	인종집단+한국단어	국적집단+외국단어	인종집단+부정단어	국적집단+긍정단어

D 값은 7단계 시행의 지연시간에서 4단계 시행의 지연시간을 뺀 값으로 계산된다. 그러므로 D 값이 클수록 7 단계의 연합이 약하고, 4단계의 연합은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7, 4 단계의 평균차이값을 표준편차로 나누어 $D2$ 를 구한다. 그리고 이 $D1$, $D2$ 두 값을 평균하여 최종적으로 개인의 IAT 효과점수 인 D 값을 계산한다. 간략히 정리하면 D 값은 7단계 시행의 지연시간에서 4단계 시행의 지연시간을 뺀 값으로 계산된다. 그러므로 D 값이 양수로 클수록 7단계의 연합보다 4단계의 연합은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D 값이 음수로 크다면 4단계의 연합보다 7단계의 연합이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 2에서 시행한 두 개의 IAT 결과 얻게 된 D 값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6에 기술하였다.

표 6 한국 IAT, 태도 IAT D 값

	평균	(표준편차)
한국 IAT ($n=65$)	-0.66	(0.45)
태도 IAT ($n=65$)	0.14	(0.47)

한국 IAT 결과, 응답자들의 D 값 평균은 -0.66 으로 음수로 나타났다. 7단계 시행이 4단계 시행에 비해 응답할 때 덜 머뭇거렸다는 뜻으로, (인종집단 + 한국적) 그리고 (국적집단 + 외국적) 의 연합이 (국적집단 + 한국적) 그리고 (인종집단 + 외국적) 의 연합보다 강하다는 것이다. 단일표본 t 검정 분석을 통해 한국 IAT 의 D 값이 0 과 유의하게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t(64) = -11.75, p < .001$. 즉, 한국 IAT의 결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인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한국인의 정체성에서 인종이 국적에 비해 더 강한 연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외현적 태도에서 국적집단을 인종집단 보다 한국적이라고 응답한 연구 1의 결과에 반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태도 IAT 결과, 응답자들의 D 값 평균은 0.14 로 양수로 나타났다. 7단계 시행이 4 단계 시행에 비해 응답할 때 더 머뭇거렸다는 뜻으로, (국적집단 + 부정적) 그리고 (인종집단 + 긍정적) 의 연합이 (인종집단 + 부정적) 그리

고 (국적집단 + 긍정적) 의 연합보다 강하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단일표본 t 검정 분석을 통해 태도 IAT 의 D 값 역시 0 과 유의하게 다르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t(64) = 2.49, p = .015$. 즉, 한국인 응답자들은 국적집단보다 인종집단에 대해 더 긍정적인 연합을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태도 IAT의 결과 역시 국적집단을 인종집단보다 외현적으로 선호한다고 응답한 본 연구 1의 결과에 반한다.

논 의

암묵적 태도를 측정된 연구 2의 결과는 외현적 태도를 측정된 연구 1의 결과와 반대이다. 구체적으로 외현적 태도에서는 국적이 인종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했던 것과는 달리 연구 2의 암묵적 연합 검사에서는 인종이 국적보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호감도에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해외 동포나 국내 이주자처럼 인종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이 모호한 대상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가 복잡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종합논의

앞선 두 개의 연구를 통해 한국인 정체성이 모호한 대상에 대한 한국인 대학생들의 지각 및 태도를 살펴보았다.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 결과를 통해 인종과 국적 모두 한국인 정체성에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민들을 한국인으로 받아들이기 꺼리는 한국인들의 복잡적 태도를 확인하였다. 이런 복잡적 태도의 내면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적집단과 인종집단에 대해 한국인 대학생들이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한 외현적 태도와 IAT 검사를 통한 암묵적 태도를 비교하였다.

연구 1에서는 한국인 대학생들에게 설문지를

통해 대상 인물들이 한국인으로 느껴지는 정도와 그들에 대한 호감도를 평정하게 하였다. 그 결과 참가자들은 인종집단보다 국적집단을 더 한국인으로 느꼈으며 마찬가지로 인종집단보다 국적집단에 더 큰 호감을 느꼈다. 두 집단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정도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랑스러운 정도에서 국적집단과 인종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참여자들이 인종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더 성공한 것으로 지각한 것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성공도 지각은 다른 측정치보다는 자랑스러운 정도와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다른 외현적 측정치에서 나타난 국적집단에 대한 선호가 상쇄되었을 수 있다. 또한, 인종집단보다 국적집단을 더 한국인으로 느끼고, 국적집단에 대해 더 호감을 표시하는 응답차이는 그들을 친숙하게 여기는 정도와 성공했다고 여기는 정도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통제하고 난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다시 말해, 대상 인물에 대한 외현적 태도 응답에서 한국인 대학생들은 인종보다 국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진 연구 2에서는 IAT를 활용하여 인종집단과 국적집단을 한국적으로 여기는 정도와 호감도를 암묵적으로 측정하였다. 연구 2의 IAT에서는 연구 1의 결과와는 반대로 인종이 국적보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호감도에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인종집단 + 한국적), (국적집단 + 외국인)의 연합이 (국적집단 + 한국적), (인종집단 + 외국인)의 연합보다 강했고, (국적집단 + 부정적), (인종집단 + 긍정적)의 연합이 (인종집단 + 부정적), (국적집단 + 긍정적)의 연합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해외 동포나 국내 이주자처럼 인종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이 모호한 대상을 한국인으로 생각하는 정도에 있어서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외현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국가 정체성과 인종 정체성이 애

매한 해외 동포와 국내 이주자를 대상으로 한국인 대학생들의 외현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는 국적집단과 인종집단에 대한 외현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가 동일 응답자의 것이 아니라는 한계점이 있다. 한 명의 응답자에서 두 가지 태도를 함께 측정할 경우 응답자가 연구목적에 유추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참가자 집단을 모집하는 대신 동질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동일 학교의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⁵⁾. 하지만 같은 사람의 외현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를 같이 수집하여 비교한 것이 아니므로 본 연구의 결과가 태도 차이로 인한 결과인지 아니면 단순히 연구 참여자가 다르기 때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두 연구의 참여자들이 대부분 20대 대학생으로 표본이 한국인을 대표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 진보적인 경향이 강한 젊은 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하여 다문화 국가를 강하게 지지할 것이라는 예상과 반대로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에서 20대의 다문화 국가 지지율이 66.1%(2010년)에서 44.9%(2015년)로 크게 감소한 반면, 단일문화 국가 지지율은 30.9%(2010년)에서 39.9%(2015년)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5년 기준 다문화 국가를 지지하는 비율을 20대에서 60대 이상까지 세대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5) 연구 1 과 연구 2 의 참여자들은 모두 같은 대학교 재학생들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나이(연구 1 평균 = 21.88 vs. 연구 2 평균 = 22.41, $t(254) = -1.81, p = .07$)와 사회경제적 수준(연구 1 평균 = 6.20 vs. 연구 2 평균 = 6.32, $t(248) = -0.53, p = .60$)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연구 2에서 한국 IAT에 응답한 참여자와 태도 IAT에 응답한 참여자들 사이에도 나이(한국 IAT 평균 = 22.38 vs. 태도 IAT 평균 = 22.43, $t(128) = 0.10, p = .92$)와 사회경제적 수준(한국 IAT 평균 = 6.38 vs. 태도 IAT 평균 = 6.26, $t(128) = -0.38, p = .7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각 연구 참여자들 사이 성비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chi^2(2, N = 256) = 0.63, p = .73$).

20대의 지지율은 44.9%로 30대의 48.9%, 40대의 58.1%, 50대의 48.7%, 60대 이상의 46.7%를 통틀어 가장 낮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가 다문화 사회 변화에 가장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 20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더 다양하고 폭넓은 표본 수집으로 대표성을 확보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국적집단 인물들은 백인 그리고 미국인으로 한정하여 사용하였다. 자극 인물들의 국적이나 인종, 그리고 성별을 다양하게 포함하지 못한 것에는 자극 인물 선정 단계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가장 컸다. 성별, 직업군, 성취도 그리고 대중적 인지도를 비슷하게 통제할 수 있는 실존 인물들을 미국 백인 집단에서 가장 찾기 수월했기 때문이다. 물론 국적집단의 인물들이 미국 백인 남성들뿐이어서 본 연구의 결과를 타인종 출신 한국 국적자에 대한 태도인 것으로 선불리 확대할 수는 없다. 하지만 모두 미국 백인 남성으로 국적집단을 구성하여 살펴본 본 연구의 장점도 명확히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는 미국인/백인들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동수, 김도환, 정태연, 2011; 노경란, 방희정, 2008). 만약 동남아인을 인물 자극으로 사용해서 암묵적 태도에서 본 연구에서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해도 그것이 국적 보다 인종 범주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인지 동남아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 태도 때문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미국 백인들을 자극으로 사용한 실험에서도 인종 범주를 선호하는 한국 대학생들의 암묵적 태도를 확인했기 때문에 적어도 해당 인종 집단에 대해 존재하는 부정적인 선입견의 영향력을 배제한 채 결과 해석이 가능하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폭넓은 인물 집단에 대해 본 연구의 결과를 재검증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특히 동북아시아에 속한 중국계나 일본계 한국인(한국 국적 취득자)을 자극 인물로 활용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인종 범주에 대한 선호를 한

층 더 세밀하게 해석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모두 한국 국적 소유자인 대학생들에 한정하여 진행하였다. 참여자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신의 한국인 정체성에 대한 응답을 따로 수집하지 않았다. 본 연구자들은 한국인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한국인 정체성 수준이 모두 높을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단 정체성의 수준 외에 참여자들에게 한국인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는 자랑스러운지 등의 응답을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했다 라면 더 풍부한 해석이 가능했을 거란 아쉬움이 남아있다. 각각자 자신의 집단 정체성 수준은 집단 간 상호작용 속 타인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각각자의 내집단 동일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외집단보다 내집단을 편애하는 성향이 더 강했다(Ellemer & van Rikswijk, 1997).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관한 연구들에서도 참여자의 내집단 동일시 수준을 개인차 변인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조혜자, 방희정, 2003; 최훈석, 이하연, 정지인, 2019). 물론 집단 간 관계를 다룬 연구 중에서도 참여자들의 집단 정체성 측정을 포함하지 않은 연구들 역시 존재한다(김동수, 김도환, 정태연, 2011; 김민영, 한규은, 2018; 김영주, 나진경, 2019; 방희정, 노경란, 정수진, 2010). 본 연구에서도 한국 국적 참여자들로만 연구를 계획하여 그들의 집단 정체성 수준을 별도로 측정하진 않았지만, 참여자들의 정체성 지각 수준을 개인차로 활용해 볼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마찬가지로 타인의 정체성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개인차 변인을 측정하지 못한 것 역시 본 연구의 한계이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편견과 고정관념은 아니었지만, 전통적인 내집단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태도 연구이기 때문에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차 변인들을 포함시켰다면 보다 더 풍부한 결과 해석이 가능했을 것이다. 고정관념에 영향

을 미치는 개인차 변인은 사회지배성향, 우익권 위주의, 타인에 대한 신뢰, 인지욕구, 평가욕구 등으로 다양하다(Carter, Hall, Carney, & Rosip, 2006). 이외에도 타인을 지각할 때 상대를 집단 구성원으로 보거나 개인으로 보는 여부는 개인의 해석수준이 영향을 미친다. 개인의 해석수준은 결과적으로 고정관념적 사고와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McCrea, Wieber, & Myers, 2012), 이런 개인차 변인도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편견과 고정관념이 아니므로 연구 계획 단계에서는 관련 개인차 변인을 고려할 생각을 하지 못했으나, 상대 집단사람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변인들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국인 정체성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인종과 국가 정체성에 대해 해외 동포와 국내 이주자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여, 외현적 태도에서는 국적이 중요하지만 암묵적 태도에서는 인종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였다는 함의가 있다. 본 연구자들이 아는 한 한국 사람들이 국가 정체성과 인종 정체성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지각하는지 직접 비교한 심리학 연구는 이전에 없었다. 그러므로 단일민족국가에서 새로운 집단 정체성의 사람들을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탐구한 본 연구가 학문적으로 기여하는 고유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결과는 빠른 속도로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 중요한 사회적 함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Berry(2001)는 그의 연구에서 다인종·다문화 사회에서 이민자 집단과 기존 사회 구성원들이 취할 수 있는 적응 전략들을 제시하였다. 그 중 이민자 집단이 새로운 사회로 편입하여 적응에 성공한 통합(integration)전략이 달성되려면, 수용자 사회도 다문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즉, 다수집단에 속하는 한국 사람들이 새로운 한국 사회로 편입되는 이주민을 받아들이려는 마음가짐이 선

행되어야 사회 통합이 가능해질 수 있다. 다인종·다문화 사회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에서도 여전히 특정 인종집단에 대한 암묵적 편견이 보고되고 있으며(Rae, Newheiser, & Olson, 2015; Vuletic & Payne, 2019), 사회적 차별이 존재한다(Quillian, Pager, Hexel, & Midtboen, 2017). 따라서 한국인의 정체성에서 외현적으로는 국적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암묵적으로는 인종을 더 중요시하는 한국인들의 태도는 타인종에 대한 사회적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다인종·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피할 수 없다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서 인종을 중시하는 한국인들의 암묵적 태도를 완화할 필요도 있다. 특히, 개인의 암묵적 태도를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상황적, 맥락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있으므로(안상수, 김혜숙, 2003; 안상수, 김혜숙, 안미영, 2004), 이들 연구를 활용하면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응용 연구들도 가능할 것이다.

저자소개

정재욱은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도덕판단, 불공정지각, 그리고 문화차이에 관심이 있다.

허주형은 Queen's University 심리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도덕성, 인지적 편향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요인에 관심이 있다.

나진경은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로 사회문화적 요인이 심리 기저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연구한다.

참고문헌

- 강원택. (2006).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책 성, 강원택 편, 한국인의 국가 정체성과 한국 정치 (pp. 15-38).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김동수, 김도환, 정태연. (2011). 외국인에 대한 한국 대학생의 인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1), 1-23.
- 김민영, 한규은. (2018). 정서조절을 통한 다문화 이주민에 대한 정서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2(3), 83-99.
- 김영주, 나진경. (2019). 다양한 경험이 외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3(3), 1-20.
- 김혜숙 (1999). 집단범주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편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1), 1-33.
- 뉴스1코리아 (2018. 10. 01). [올림픽] 푸른 눈의 태극전사, 귀화 선수 15인의 기록.
<https://sports.news.naver.com/general/news/read.nhn?oid=421&aid=0003226574> 에서 검색
- 방희정, 노경란, 정수진. (2010).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인종에 대한 암묵적 태도와 외현적 태도의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2), 125-140.
- 안상수, 김혜숙. (2003). 내·외집단 규범정보가 양성평등정책 및 내현적 성편견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3), 51-75.
- 안상수, 김혜숙, 안미영. (2004). 내·외집단 규범 정보가 외현 및 암묵적 편견에 미치는 통제적 영향: 성 편견과 지역 편견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3), 155-186.
- 엄한진, & 이선미. (2006). 전지구적 맥락에서 본 한국의 다문화주의 이민논의. 서울: 한국사회학회 기타간행물, 13-46.
- 엑스포즈뉴스 (2018. 10. 01). [평창 결산] '푸른 눈의 한국인' 귀화 선수들이 높인 한국의 위상.
<https://sports.news.naver.com/general/news/read.nhn?oid=311&aid=0000828024> 에서 검색
- 오미영. (2009). 혼혈인에 대한 낙인연구: 혼혈인에 대한 낙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낙인 효과. 한국사회복지학, 61(2), 215-246.
- 이내영, 윤인진 (2016). 한국인의 정체성: 변화와 연속, 2005-2015. 서울: 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소: 동아시아연구원.
- 이현지, 방희정 (2012). 노인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8(2), 191-213.
- 조혜자, 방희정. (2003). 여성의 외현적 암묵적 자아해석에 미치는 성 고정관념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3), 101-121.
- 주유선, 김기태, 김보미. (2019).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수시) 2019-11.
- 최훈석, 이하연, 정지인. (2019). 충소된 사회정체성 구조에서 정체성 불확실성과 내집단 동일시, 남북한 화해 태도 및 행동의도 간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3(4), 45-59.
- Banaji, M. R., & Heiphetz, L. (2010).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353-393.
- Berry, J. W. (2001). A psychology of immigra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57(3), 615-631.
- Berry, J. W. (2006). Mutual attitudes among immigrants and ethnocultural group in Canada.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0, 719-734.
- Brewer, M. B. (1991). The social self: On being the same and different at the same tim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7(5), 475-482.
- Butz, D. A., Plant, E. A., & Doerr, C. E. (2007). Liberty and Justice for All? Implications of Exposure to the U.S. Flag for Intergroup Rela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 33(3), 396 - 408.
- Carter, J. D., Hall, J. A., Carney, D. R., & Rosip, J. C. (2006).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acceptance of stereotyping.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0*(6), 1103-1118.
- Carter, T. J., Ferguson, M. J., & Hassin, R. R. (2011). Implicit Nationalism as System Justificatio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ocial Cognition, 29*(3), 341 - 359.
- CNN (2018. 2. 14.). Chloe Kim: America's 17-year-old snowboarding sensation. <https://edition.cnn.com/2018/02/12/sport/chloe-kim-snowboarding-halfpipe-x-games-winter-olympics-17/index.html> 에서 검색
- Dunton, B. C., & Fazio, R. H. (1997). An individual difference measure of motivation to control prejudiced reac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3), 316-326.
- Eagly, A. H., & Chaiken, S. (1993). *The psychology of attitudes*. Forth Worth, TX: Harcourt Brace Jovanovich.
- Fazio, R. H., Jackson, J. R., Dunton, B. C., & Williams, C. J. (1995). Attitudes and social cogn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6), 1013-1027.
- Gilbert, D. 2005. "Interrogating Mixed-Race: A Crisis of Ambiguity?" *Social Identities, 11*(1): 55-74.
- Good, J. J., Chavez, G. F., & Sanchez, D. T. (2010). Sources of self-categorization as minority for mixed-race individuals: Implications for affirmative action entitlement.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6*(4), 453-460. doi: 10.1037/a0020128
- Greenwald, A. G., & Banaji, M. R. (1995). Implicit social cognition: attitudes, self-esteem, and stereotypes. *Psychological Review, 102*(1), 4-27.
- Greenwald, A. G., McGhee, D. E., & Schwartz, J. L. (1998).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implicit cognitio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6), 1464-1480.
- Greenwald, A. G., Nosek, B. A., & Banaji, M. R. (2003). Understanding and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I. An improved scoring algorith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2), 197-216.
- Hofmann, W., Gawronski, B., Gschwendner, T., Le, H., & Schmitt, M. (2005). A meta-analysis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and explicit self-report measur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10), 1369-1385.
- Hornsey, M. J., & Hogg, M. A. (2000). Subgroup relations: A comparison of mutual intergroup differentiation and common ingroup identity models of prejudice reduc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2), 242-256.
- Lloyd, J., Chalklin, V., & Bond, F. W. (2019). Psychological processes underlying the impact of gender-related discrimination on psychological distress in transgender and gender nonconforming peop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6*(5), 550-563. doi: 10.1037/cou0000371
- McCrea, S. M., Wieber, F., & Myers, A. L. (2012). Construal level mind-sets moderate self-and social stereoty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2*(1), 51.
- Miklikowska, M. (2018). Empathy trumps prejudice: The longitudinal relation between empathy and anti-immigrant attitudes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54*(4), 703-717. doi: 10.1037/dev0000474
- Mossakowski, K. N. (2003). Coping with perceived discrimination: Does ethnic identity protect mental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4*, 318-331.
- Nagayoshi, K. (2011). Support of multiculturalism,

- but for whom? Effects of ethno-national identity on the endorsement of multiculturalism in Japan.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7(4), 561-578.
- Neumann, R., Hülsenbeck, K., & Seibt, B. (2004). Attitudes towards people with AIDS and avoidance behavior: Automatic and reflective bases of behavior.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0(4), 543-550.
- Nosek, B. A. (2005). Moder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mplicit and explicit evalu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34(4), 565-584.
- Nosek, B. A. (2007). Implicit - explicit relation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6(2), 65-69.
- Nosek, B. A., Greenwald, A. G., & Banaji, M. R. (2005). Understanding and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II. Method variables and construct valid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2), 166 - 180.
- Nosek, B. A., & Smyth, F. L. (2007). A multitrait-multimethod validation of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Experimental Psychology*, 54(1), 14-29.
- Oakes, P. J., Haslam, S. A., & Turner, J. C. (1994). *Stereotyping and Social Reality*. Oxford: Blackwell.
- Quillian, L., Pager, D., Hexel, O., & Midtbøen, A. H. (2017). Meta-analysis of field experiments shows no change in racial discrimination in hiring over tim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4(41), 10870-10875.
- Rae, J. R., Newheiser, A. K., & Olson, K. R. (2015). Exposure to racial out-groups and implicit race bias in the United States.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6(5), 535-543.
- Reyna, C., Dobria, O., & Wetherell, G. (2013). The complexity and ambivalence of immigration attitudes: Ambivalent stereotypes predict conflicting attitudes toward immigration policie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9(3), 342-356. doi: 10.1037/a0032942
- Smith, E. R., Murphy, J., & Coats, S. (1999). Attachment to groups: Theory and manag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1), 94-110.
- Smith, H. J., & Tyler, T. R. (1997). Choosing the right pond: The impact of group membership on self-esteem and group-oriented behavior.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3(2), 146 - 170.
- Tajfel, H. (1982).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3(1), 1-39.
- Tajfel, H., & Turner, J. C.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W. Austin & Worchel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pp. 33-48).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Thoroughgood, C. N., Sawyer, K. B., & Webster, J. R. (2020). Because you're worth the risks: Acts of oppositional courage as symbolic messages of relational value to transgender employe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Advanced online publication. doi: 10.1037/apl0000515
- Tsuda, T. (2014). 'I'm American, not Japanese!': the struggle for racial citizenship among later-generation Japanese Americans. *Ethnic and Racial Studies*, 37(3), 405-424.
- Turner, J. C., & Oakes, P. J. (1989): Self-Categorization Theory and Social Influence. In P. B. Paulus (Ed), *Psychology of Group Influence*(pp. 233-75).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Verkuyten, M. (2010). Assimilation ideology and situational well-being among ethnic minority member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 46, 269-275.
- Vuletich, H. A., & Payne, B. K. (2019). Stability and change in implicit bias. *Psychological science*, 30(6), 854-862.
- Wilson, T. D., Lindsey, S., & Schooler, T. Y. (2000). A model of dual attitudes. *Psychological Review*, 107(1), 101-126.
- Xu, K., Nosek, B., & Greenwald, A. (2014). Psychology data from the race implicit association test on the project implicit demo website. *Journal of Open Psychology Data*, 2(1).
- Yip, T., & Fuligni, A. J. (2002). Daily variation in ethnic identity, ethnic behavior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American adolescents of Chinese descent. *Child Development*, 73, 1557 - 1572.
- 1 차원고접수 : 2020. 02. 07.
수정원고접수 : 2020. 07. 29.
최종게재결정 : 2020. 08. 09.

What Makes Someone a Korean: Comparing Koreans Explicit and Implicit Attitude on National and Ethnic Identity

Jaewuk Jung

Sogang University

Ju Hyung Huh

Queen's University

Jinkyung Na

Sogang University

Korean society is rapidly shifting to a more multiethnic and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perception on Korean identity may be changing as well. The current studies compared Koreans' perceived importance of the components of Korean identity, focusing on Korean ethnicity and nationality. Specifically, we asked participants to compare between a group of non-ethnic Koreans who are Korean nationals (national group) and ethnic Koreans who are foreign nationals (ethnic group), in terms of each group's perceived closeness to Korea and the likeability of each group. In Study 1 where we measured explicit attitude using a self-report measure, university students (N = 126, male = 48, mean age = 21.88) reported that national group felt more Korean and was more likeable than ethnic group. However, in Study 2 where we measured the students' implicit attitude using IAT, ethnic group was more strongly associated with Korea (N = 65, male = 21, mean age = 22.39) and was seen in a more positive light (N = 65, male = 24, mean age = 22.43). These results help us understand Koreans' psychological complexities when facing the shift toward a more multiethnic and multicultural society.

Key words : nationality, ethnicity, identity, explicit, implicit, attitude